

서 면 질 문

류재구 의원

- 첫째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정 현실은 정말 어렵고 힘든 노인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외되고 힘겨운 삶을 사는 노인분들이 편안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과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전해는 어떤가?
- 둘째, 2002년 월드컵 유치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축구열기에 편승, 우리 시에서도 열악한 체육시설 보완 및 신축 등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당국의 계획은 무엇이며 진척상황은 어떤가?
- 셋째로, 청소년 탈선문제가 이제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대응책이 강구될 만큼 심각한데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학부형 대책기구를 하루 빨리 만들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전해는?
- 넷째로, 심곡본1동이 1990년 1월 1일에 분동되면서 현재의 심곡본동 617-127번지 일대가 심곡본동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 여건으로 봐서 심곡본1동에 소속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 심곡본동 인구 22,785명, 심곡본1동 인구 22,134명에 비추어 617-127번지 내 132명, 617-123번지 내 18명, 617-124번지 내 7명, 617-125번지 내 65명, 617-157번지 내 3명 등 통계 222명임.
- 다섯째로, 낮뿐만 아니라 밤에 구 도심권의 주차문제는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시는 공공시설의 개방을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 시도 공공시설이나 학교운동장을 개방하여 야간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전해는?

서강진 의원

1. 교통대책의 분산효과와 환경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전거타기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부천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보와 더불어 부천에도 여의도 광장과 같이 청소년들이나 시민이 자전거를 타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부천의 현실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차선으로 일요일에 한해 차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복개천 같은 것을 일요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에 한해 차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자전거를 타며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주면 좋겠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2. 경로당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에 많은 경로당이 설립되어 있으나 일부 동에서는 더 증설하여야 할 곳이 있기도 합니다만 많은 경로당들이 모든 노인들에게 고른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운영 방법을 제시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일 없이 노년을 외롭게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시는 경로당이 아니라 무언가 즐거움을 주고 무엇인가 얻고 갈 수 있는 경로당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령 주기적으로 레크레이션이나 건강교실 또는 봉사일정 등으로 계획표를 만들어 지도 운영 한다면 노인들에게도 무료함을 달랠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3. 소사택지지구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5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학로인 인도가 비좁아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쓰고 서로 교행할 수 없는 아주 비좁은 인도이므로 인도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학로로 가는 길목에는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에 담장을 높이 쌓아놓아 우산을 받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폐자재를 쌓아놓아 도심 미관을 해치기도 합니다. 또한 담장으로 인해 외부와 차단되어 있으므로 담장의 철거와 사유지에 구민회관 같은 것을 세워서 소사구민들이 각종 스포

츠센타와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용석 의원

- 2002년 월드컵 개최가 비록 일본과 공동개최로 아쉬움이 남지만 한국으로선 대단한 성과로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위상이 가일층 높아지리라 판단됩니다.

우리 부천시에도 유공축구단의 탄생과 더불어 80만 시민이 축구에 대단한 관심을 갖게 됨은 물론이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축구에 대한 열의도 남다름을 느낄 수 있는 이 때에 부천시에서 월드컵을 유치하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선진 시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꼭 잡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다음 사항에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1. 국제 규격의 축구경기장을 조기에 완공 계획은?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및 관내 유지와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월드컵 경기 유치 “범부천시민유치위원회”를 발족할 용의는?

- 부천시 소사구청이 7월말이면 신청사로 이사를 갑니다. 현 소사구청부지(평)은 장기적으로 볼 때 공원화하여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관내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시립탁아소를 건립하면 최적이다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최해영 의원

1. 독거노인 현황과 지원 대책을 밝혀주시고 독거노인 중 취업을 희망하는 현황과 조치결과를 밝히

시고 무료 이·미용권과 무료 목욕탕 이용권을 지원할 의사는 있는지, 아니면 관내 이·미용협회와 목욕탕협회에 이용 협조의뢰를 할 용의는 있는지?

2. 청소년, 여성 가출이 전년동기비 10%선이 늘어난 96년 3월말 현재 전국이 9,300여 명인데 우리 시에서 발생하여 집계된 현황과 조치사항을 밝혀주시고 가출의 주된 원인과 보호대책 내용은?
3. 재난(고층 건물 붕괴등) 발생 시 협조체제망(군, 경, 공무원, 시민 등 관계기관)과 총괄지휘체제망을 말씀하시고 우리 시 오존경보체제망과 기준치 이상 발생 시 조치 현황은?

김일섭 의원

1. 교육비 지원(시설지원비 포함)에 대한 계획은?
2. 오존예고제를 시행할 계획은 있는가? 시행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3. 도당공원 조성계획의 진척상황은?
4. 영상단지계획의 진척상황은?
5. 현직통장 중 6년 이상 장기근속인원 현황은?
(연도별로 이름, 소속, 재임기간)
6. 재활용촉진을 위한 대책은?
7. 재활용노조의 처리에 대한 진행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은?

8. 폐기물 종합처리장 공사 진척상황은?

9. 부천시 관내의 문화재 현황은?

한윤석 의원

1. 소사구 송내동 “송내지하보도공사가 소사구 송내동과 원미구 상동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지하터널공법으로 송내동의 우성, 뉴서울, 육일아파트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완공 후에 예전되는 치안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커 대폭적인 설계변경 내지 보완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주차단속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예전에는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기 전에 경고장을 붙인다든지 호루라기를 불어 일정한 시간을 주고 옮기지 않는 차에 대해서만 스티커를 발부하였으나 현재는 사전 예고 없이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어 단속을 위한 단속, 실적위주의 단속으로 특히 영세상인 등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사전예고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3. 경인국도를 경유 운행되는 서울↔인천간 시외버스가 언제부터인가 거의 운행중단 내지 감축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1시간 내지 2시간 이상 기다릴 때도 있으며 결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울↔인천간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정상운행이 장기적으로 어렵다고 예측되는데 이런 경우 역곡시계에서 송내동 시계까지 부천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서라도 부천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지역에 한하여 오수정화시설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설치를 면제할 계획이 있는지?

윤석홍 의원

질문1)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30-130번지의 주거대책 민원전.

첨부된 민원서와 같이 심곡본동 530-130일대 50여 가구 주민은 다가오는 장마철 등 재난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련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인식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적극적이지 못하여 긴 세월이 흘러왔으며 아직도 해결방법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며 결론은 우리 시에서 끌어안고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과 동시에 반드시 처리해야 될 숙원사업인 것입니다.

더구나 96년 2월까지의 사업계획을 마무리하고 주민들에게 통보한다는 약속을 해놓고 시정질문일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고 이주대책이라든지 이주할 때를 대비하여 보상금 등을 산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업무의 성질이 난해하다고 하여 앞으로 연구해 보겠다고라는 식의 책임성 없는 답변으로 인하여 민원인들이 본인을 찾아와 항의를 하고 더구나 청원에 대한 회신서 도시 58400-810(96. 4. 8)에 주민들 대부분이 재건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임의적 답변과 함께..... 중 략..... 조속한 대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임을 회신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첨부된 주민의 입장이 본인에게 접수돼 해결방안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대안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심곡본동 530-130일대의 면적은 약 1,080평이나 부천시의 소유지분이 약 400여 평이 있는 것으로 당해 지분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증여를 해주도록 되어있다 하니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 2) 부천시 지분은 공공목적 사업 등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공동개발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부천시 지분을 주민들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절충할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업무진행이 요구됩니다.
- 3)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할 때 당해부지가 언덕으로 되어있어 난해한 점은 있다 하나 현재의 토공기술 능력으로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 보전 및 미관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방법을 지구지정 시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해결방법에 접근하여 주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진행과정과 함께 대안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관계자께서는 적극적인 검토 후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2)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도시가스 누출사고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은 무엇인가?
도시가스 관련 누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칫 커다란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고, 시급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우리 시라 하여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회사에서 지역정압기 운전상태를 점검하는 요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부적격자로 판명되고 TMS system(원방감시경보장치)등의 관리 부재 및 업무 소홀에서 도시가스 누출사고가 있었다는 사건의 수사결과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 전문요원이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정압기 및 TMS system 등 정도검사를 하는 등 관계자께서는 실태점검 확인 후 부천시에 대한 현재의 실정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청원서 사본 1부

부천시 청원서 회신 1부

회신에 따른 주민입장 1부 끝.

청 원 서

수신 : 부천시장 귀하

부천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심곡본동 530-130번지 일대 50여가구 주민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 왔으나 부천시와의 이견(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 시유지중여곤란, 동지상의 재건축시 성주산 환경불량)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95년 12월 “반드시 주민들이 이곳에만 정착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중동 제2개발지역으로 이주계획 수립 시 이주도 하겠느냐?”의 두 가지 큰 대안을 놓고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저희 주민들은 원만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 고향을 버리더라도 이주를 희망하였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96년 1월 10일까지 설문내용을 분석, 2월말까지는 사업계획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하였으나 96년 4월 현재까지 이주비, 평당보상가, 이주지역 등 아무런 통보가 없고 저희 주민들은 봄철 해빙기와 다가오는 장마철에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선처해 주시어서 이곳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4 월 1월

심곡본동 530-130번지 주민대표 박덕기 배상

“문서유통량 50%감축 적극 실천합시다”

부 천 시

우 421-110/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71/ 전화 032)650-2432/ 전송 도시과 오동완

문서번호 도시 58400-810

시행일자 1996. 4. 8

경 유

수 신 심곡본동 530-130 박덕기

참 조

제 목 청원서 회신

귀하가 96. 4. 3일자로 제출하신 청원서 내용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시에서 95년 12월경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그 내용을 분석,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코자 하였으나

2. 주민들 대부분이 재건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임대아파트 임주도 희망하지 않고 대부분이 전용면적 25평(분양면적 30평) 이상의 공동주택을 선호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계속 연구하겠으니

3. 우선 봄철 해빙기 및 장마철에 대비하여 시에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나 주민들도 자체적으로 재난대비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 천 시 장

부천시 답변에 따른 주민입장

주민자체 재건축 능력의 있고 없음은 속단할 수 없는 것이며 주요 이유는 전체평수 약 1,080평 중 부천시 지분 약 400평이 있으므로 주민 단독으로는 재건축할 수 없는 실정이며, 작지만 개인소유의 주택을 갖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내집도 아닌 좁은 임대주택은 지금의 주택환경과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공동주택 규모는 필수 평수가 아니고 희망 평수이므로 조정 가능하며, 또한 희망평수에 따라서 보상액을 제외한 부족 입주금액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 입주자가 부담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는 오래 전부터 주민이 희망해 오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지구 지정 시 당연히 법으로도 증여해 주도록 되어 있는 시지분을 증여곤란이라는 이유로 허가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와 주민이 공동 개발하여 시 지분은 시가 소유하고 주민 지분은 주민이 소유하는 대안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분명한 것은 주민이 먼저 이주를 원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주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곤란에 따른 대안으로서의 설문조사임을 주지하시고 책임을 주민의 무능력으로 전가시키지 말고 붕괴 위험에 처해있는 이 지역의 근본적인 대안을 촉구합니다.

주민대표 박덕기 외 50명 일동

김광희 의원

1. 경인고속도로 부천인터체인지에 중동신도시를 알릴 수 있는 교통표지판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2. 중동신도시 공원 내 잔디밭에 크로바가 번성하고 있어 잔디에 손상될 우려가 있어 보호해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근본대책이 있는지 시정조치 바랍니다.